김조년 / 사회학박사,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환경연합 공동의장
by Kim Jo-nyeon

사람이 살 만한 아파트 마을

An Habitable Apartment Town

상당히 오래도록 아파트생활을 경멸까지는 아니더라고 싫어하였다. 도시경관을 완전히 잔인하게 파괴하고 사람이 살맛나지 않게 견고한 그 모습이 싫었다. 전문가들이나 업자들은 다르게 생각하였겠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산세나 자연의 모습을 전혀 맞추어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려놓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의 군상이 싫었다. 특색없이 한결같은 유니폼의 그 모습이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듯이 느껴져서 싫었다. 어느 후질그레한 도시의 한 쪽이 이른바 ' 재개발 ' 이나 ' 재건축 ' 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할 때마다 여지없이 아파트들의 거대한 블록을 만드는 것이 못내 아쉽고 싫었다. 처음에는 대개 일자형으로 남향하여 짓더니, 요사이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정사각형으로 배치하여 훨씬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조성하여 놓았다. 그렇게 밖에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밖에 없는 담당자들을 질타하였다. 물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길이 그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결같이 무섭게 솟아오르는 아파트들의 군집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가장 안일하고 고민하지 않는 주거문제해결책이 바로 아파트로 정착했다는 점은 더 물을 필요도 없이 명확할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았었다. 가뜩이나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다니는 반생명, 반인간의 딱딱한 죽음과 죽임의 상징으로 보여 항상 불만을 느끼던 터에 그러한 콩크리트 벽 속에서 갇혀 산다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쩔 수없이 지금 나는 19층 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보니 멀리까지 방해를 받지 않고 볼 수 있어서 고맙기도 하다. 맨 꼭대기층이니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또 이제는 어린 아이가 없으니 그들 때문에 쿵쿵거려 아랫층에 사는 사람들을 방해할 것 같지도 않기에 다행이다 싶다. 남향을 좋아하지만,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을 찾아 늦게 들어간 곳이니 동향과 서향으로 된 곳에서 살게 됐다. 햇빛이 다르게 보여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좀 춥지만, 해뜨고 해지고 달뜨고 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좋다. 그런 것들이 다른 불편한 것들을 상쇄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 아파트에 살면서 의문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왜 아파트값이 그렇게 심하게 치솟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왜 재산증식의 수단이 돼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이 꼭 사람의 등급, 계급을 말하여 주는 듯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청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어려웠다. 평수를 계산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스럽다. 몇 평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공유면적과 공동사용공간을 다 포함하여 계산한단다. 그래서 공간개념에 혼란을 조장한다. 차라리 사용면적에 대한 계산을 실평수로 하고, 공동사용공간에 대한 계산을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른바 거품평수계산법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솔직하지 못한, 실제와 형식을 따로따로 보는 것을 대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왜 그 큰 아파트단지에 철근 울타리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물론 자동차가 들어갈 곳이 일정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것도 정문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주변의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서로 구별해놓으려는 어떤 특권의식이 발동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거대한 아파트지역에 있는 것들끼리도 울타리나 담으로 구분하여 놓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는 것 때문에 아파트단지 안의 아늑한 생활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살아나지 않는다. 그냥 옹색하게만 보인다. 이것은 의미를 상실한 단순한 버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옛날부터 부자들이나 고관들이 살던 고대광실 거대한 집들은 하층민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것을 토대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층민의 지배의식에서 높은 담을 치고 대문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으로 위세를 떨치려고 하였던 허위의식에서 그렇게 주택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점점 퍼져서 일반 서민들도 자기들 집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쳐서 자기집의 영역을 확보하였다. 소유권과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선언이요 주장이 바로 울타리와 담이었다. 그것으로 자기세계를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의 집모양이 담이 없다면 집안 알맹이를 완전히 바깥에 드러내는 것이 되기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할 때 담을 쌓고 울타리를 쳐서 속을 보호하였던 것은 당시 현실에 맞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집도 옛날과 같이 울타리가 꼭 있어야 할 모양으로 짓지 않는다. 그런데도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버릇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관청에도 울타리를 친다. 그 집단버릇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 본다. 개인주택들의 울타리가 없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거리공간과 경관이 확보될 것이다. 울타리나 담이 이웃과 경계를 짓기에 집들이 자연스럽게 옹색하고, 좁고, 답답해 보인다. 푸른 나무들이나 풀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것은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단지에 울타리를 없애고, 땅위로 나와 있는 주차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오래 생각해 보았다. 지금처럼 정문을 통하여 차가 드나들지 않고, 바깥 길에서 직접 자기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가 되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자동차가 정문을 통과하고, 땅위에 주차할 수 있게 돼 있기에 어떤 아파트단지도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걷고 뛰어 놀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없다. 더더욱이나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기는 아예 틀려버린 것이다. 거기에다 아주 슬프고 답답한 소리를 자주 듣는다. 자기 집에서 나간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간다든지, 치고 놀던 공을 따라가면 한결같이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얘! 뛰지마! 차 와!" 또 종종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방송한다.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있으니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 길이나 주차장에서 공놀이나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게 교육하여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한 방송을 들을 때, 이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공간 안의 빌어먹을 생활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아래위층에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여야 하고, 지나다니는 차를 조심하여야 하고, 세워놓은 차를 다치게 할까봐 조심하여야 한단다. 이러한 것들은 이웃을 배려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면 약간 이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뛰고 놀아야 할 약동하는 생명을 억누르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억눌린 공간에 사는 찌그러진 모습을 스스로 초래한다. 아주 가까이 밀착된 공간에서 살지만, 서로 깊이 인사하지 않고 긴밀히 오고가는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산다.

지금은 약간 이해가 빨라졌지만, 처음 아파트들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기에는 무척 힘들었다. 그 나름의 번호를 붙이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일단은 아파트의 동수를 결정한 것이 확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모든 숫자가 일단은 높다. 예를 들면 1동이라고 하

면 쉬웠을 것을 101동이라거나 1001동이라고 붙인 곳이 많다. 101동과 102동 103동을 차례짓는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다. 어떤 논리를 상실한 듯이 보일 때가 많다. 107동을 찾은 뒤 108동을 찾으려면 그 종적이 사라지고 어디로 숨었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리고 아파트 동 입구에 써 놓은 숫자가 어떤 체계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것이 층을 말하며, 어느 것이 같은 높이의 집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리송하였다. 일단 숫자가 써 있는 문앞에 당도한 뒤에도 문패가 없기에 난감할 때가 많다.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맨 아래 편지함들이 달려 있다. 그곳에도 이름이 없다. 다만 호수를 알리는 숫자만 있을 뿐이다. 편지가 올 때에도 이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때문에 올 때가 많다. 우편함에 잠금장치는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 열려 있는 채 덜렁거리게 두어야 한다. 날씨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릴 때도 출입문은 항상 열어젖힌 상태로 있을 때가 많다. 그것 때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은 당연할 것인데도 그렇다. 어느 건설회사가 한 순간에 지은 집들은 겉으로 보기에 한결같이 똑같다. 어떤 특색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획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값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사용한 물질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치 군대에서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머리형에 똑같은 발자국을 떼어놓는 제식훈련을 보듯이 완전히 획일화한 모습을 본다. 천정의 등, 벽에 달린 전화나 인터폰, 벽지와 화장실의 거울 따위들이 한결같이 똑같다. 몹시 지루하고 끔찍한 느낌이 든다. 차이가 있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가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제한된 공간배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지극히 제한된 변화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참아 줄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살수록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 밀집하여 사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쾌적하면서도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꾸리고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소방도로나 이삿짐 등을 나르기 위한 길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보통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길에서 아파트 밑으로 차가 직접 들어가서 몇 층에 걸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의 승강기와 연결될 수 있게 설계되고 작업이 되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짓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개의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기네 집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아파트의 지상공간을 모두 정원과 푸른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생활공간을 가능한 한 자연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큰 나무들과 풀들과 꽃들이 어른이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게 할 필요가 있다. 좀 두껍게 흙바닥을 만들어 나무와 잔디와 풀을 심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산책길과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앉을 공간을 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어른들이 쉽게 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같은 지나치게 개별화된 아파트주민들의 달팽이집 생활이 극복되고 아기자기한 내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편함이나 집 문에 이름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도시의 익명성을 즐기고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기 싫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도 하다. 서로 이름이 무엇이며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가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맛에 도시에 살며, 아파트에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단 문을 닫으면 폐쇄된 자기만의 공간을 즐기는 것이 아파트 생활의 장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른 세계와 연결을 맺고 싶을 때는 이미 맺었던 인연들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할지언정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익명의 세계에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더욱이나 이웃한 사람들 사이의 지나친 감춤의 행위는 이웃이라 할 수 없을만큼 살벌한 삶의 전형이다.

아파트의 동이나 라인에 공동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물론 아파트건설업자들의 이익취득이나 공동사용공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맨 아래층에 마을 사랑방을 꾸리는 것이 좋다. 그곳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의 모임을 가지거나 어느 한 가정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열린공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상의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창조활동을 무수히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시골마을에서 사랑방, 마을회관, 느티나무아래에서 놀고 공론을 하던 것처럼 이러한 공간에서 자주 만나고 쉽게 공동의 일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파트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훌륭한 짧은 길이라고 본다.

적어도 1000세대나 1500세대가 한 단위가 되어 작은 극장이나 강당들이 마련되어 작은 단위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게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문화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편리한 것일지 모르지만, 생활문화, 문화생활을 일상생활과 연결짓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동시에 공동의 체육시설이 만들어져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앙집중식의 문화공간도 필요한 것이지만, 작은 문화공간은 곧 마을공동체를 활기있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절기마다 주민들이 마련한 노래나 연극이나 다른 놀이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강좌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 안에 마을도서실과 공부방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바쁘게 참여하기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도서실과 공부방이라면 매우 좋은 인상을 전달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자기들이 읽은 도서를 기증하거나 바꾸어보는 것이나, 나누는 장소로 활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어른들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을도서관은 자기집 서재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좋다. 때때로 이 장소에서 벼룩시장을 열어서 나누고 바꾸고 아끼고 다시 쓰는 생활을 공동으로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파트지대를 설정할 때부터 기본원칙이 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아파트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